

## 「웨이드 컬렉션(Wade Collection)에 나타난 유가 경전 및 소학류 서적에 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구현아(용인대)

신원철 선생님께서는 근대시기 대표적인 재중 서양인 학자 ‘토마스 웨이드’가 수집한 구체적인 중국 서적 목록과 그 분류 방법에 대해 논하고, 주요 서적에 대해 판본학적, 서지학적 분석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양인이 편찬한 중국어교재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일환으로 직접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웨이드 컬렉션을 열람하고 오셨기 때문에, 직접 열람하고 온 감격스러움으로 더 진정성을 갖고 이 연구를 진행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학 전공자로, 웨이드가 편찬한 어학 교재에 관해서는 몇 차례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경학 및 소학류 자료에 대한 연구는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이로 인해 웨이드의 학문적 성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자가 아니라 선생님의 연구에 누가 될까 염려가 되지만, 발표를 들으면서 생긴 몇 가지 의문점과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첫 번째는 책의 배열 순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책이 배열된 순서를 보면, 편찬시기, 서명의 획수 혹은 로마자 순서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서문을 보면, 웨이드가 컬렉션을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간을 들여 순서를 다시 배열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V쪽, Prefatory note 첫문단, Although I have been most liberally dealt with as to space, however, the arrangement of the books, necessarily requiring an acquaintance with the Chinese written character, and hence devolving on me single-handed, has taken longer than I had anticipated.) 또, ‘불필요하거나 불완전하는 것을 빼고 나면 유교 철학, 고고학, 역사 등 고급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만큼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Still, when all that is superfluous or imperfect has been deducted, there will be found in the departments of Confucian philosophy, both of the earlier and later schools ; of Archaeology ; History and reliquice of public men; Geography, topographical and political; Law and Administration; Poetry and Belles Lettres; enough to satisfy the needs of an advanced student of the language.)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할 때, 단순히 수집 순서가 아니라, 당시 웨이드는 컬렉션의 목록을 제작하는 데도 웨이드만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기준은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적을 우선적으로 배열한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이 드는데요, 이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웨이드가 이 서적을 수집한 목적입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서문에서 웨이드는 이 서적들이 ‘고급 학생’의 중국학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웨이드의 재중 활동을 보면, 그는 재중 초창기부터 중국에 입국한 관료 그룹이 반드시 중국어를 학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중국어 학습반을 만들고, 여기에서 가르치기 위해 ‘심진록’과 ‘어언자이집’을 편찬했습니다. 웨이드가 캠브리지 교수를 역임한 것은 서문을 쓴 2년 후인 1888년부터인데요. 따라서 캠브리지 중국어학 교육과정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당시 혼돈의 중국에서 이 서적들을 수집하고 가져온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요?

3. 웨이드의 관심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컬렉션에 수집된 서적의 정량적 분석 통해 그가 중국의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통계 내신 결과를 볼 때 B에 해당하는 ‘역사, 전기 및 법령’에 관한 서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전의 편집본, 유, 불, 도 경전’의 숫자가 많은데요. 이를 토대로 웨이드가 이 방면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웨이드의 관심 분야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방증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웨이드의 컬렉션은 서양 국가에 중국학이 본격적으로 교육되고, 계승되는데 학문적 토대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일스가 이 컬렉션 책을 출판한 것은 그가 웨이드를 이어 캠브리지 2대 교수를 역임한 그 다음해에 지어진 건데요, 자일스가 다양한 저작을 편찬하는데 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캠브리지에 온 뒤에는 A Chinese-English Dictionary,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Chinese Fairy Tales와 같은 중국 문학방면 저서나 Great Religions of the World,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inese Pictorial Art등과 같은 종교, 예술 방면 저서도 많이 지었는데요, 이러한 다작이 가능하게 된 건 웨이드 컬렉션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이외에 웨이드 컬렉션이 서양의 중국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까요?